

文, 세월호 기억식서 눈물... 安, 정경유착 근절 인터뷰

대선후보 2차 TV 광고 공개... 본격 이미지 전쟁

洪 '강한 대통령' 劉 '새로운 보수' 메시지 담

대선후보들이 TV광고 영상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이미지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TV광고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이미지와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탓에 각 캠페이션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지난 21일 세월호참사 기억식에 참석한 후 후보의 모습을 담은 2차 TV광고의 콘셉트를 공개했다. 지난 16일 세월호참사 3년 기억식에 참석한 문 후보의 모습을 담아낸 영상을 TV광고로 제작, 방영했다.

문 후보 측은 “클로즈업된 문 후보는 처음에는 담담한 표정을 지어보지만, 추모 노래가 울려 퍼지는 동안 애써 울음을 참다 결국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린다”면서 “이번 광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후보의 열

굴만 비추는 조금은 파격적인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후보 측은 1차 TV광고의 콘셉트를 ‘행복한 나라’로 잡았다. 문 후보의 첫 TV광고는 문 후보가 정면에 나서지 않는 점과 배경음악을 원곡 그대로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강한 대통령’편을 공개했다. 천둥이 치는데 개구리가 울고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는 장면이 첫화면에 뜬다.

한국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로 시야가 넓어지면서 주변 강대국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정치권이 당파, 계파 싸움에만 몰두하며 국민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물 안 개구리’를 통해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23일

TV 광고 2탄인 ‘개혁’편을 공개했다. 후속 TV 광고는 1분 분량으로, 안 후보의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됐다. 광고에서 안 후보는 ‘개혁’ 글자가 적힌 초록색 뒷걸개 배경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재킷 차림으로 시청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부정부패·정경유착 근절과 자수성가가 인정받는 사회 등을 빠르고 힘찬 목소리로 역설한다.

배경음악도, 요란한 효과와 편집도 없이 오직 안 후보의 모습과 육성만 등장한다. 지난 21일 공개된 1편이 안 후보의 출연 없이 ‘모션 타이포’ 기법의 질 세 없는 화면 전환과 강렬한 배경음악으로 구성된 것과 대조적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선거 포스터에서도 강조한 ‘보수의 새희망’을 녹여낸 TV 광고를 공개했다. 사무실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등장한 유 후보가 자신이 생각하는 ‘공화’와 ‘보수’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수의 새희망 유승민’이라는 멘트와 함께 같이 나는 영상은 유 후보가 평소 강

조해 온 ‘새로운 보수’ 메시지를 그대로 담아냈다는 설명이다.

후보들은 14대 대선부터 TV 광고를 선거 운동 수단으로 본격 활용했다. 대통령 선거 TV 광고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총 30회 방영할 수 있다. 길이는 1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후보들은 총 30분 동안 유권자에게 확실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기간 후보의 TV·라디오 방송연설이 모두 109회 실시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2002년 대선 때와 비교하면 방송 연설은 20회 늘었다.

후보별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각각 법정 최대횟수인 44회를 신청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11회, 국민통합당 장성민 후보가 10회를 각각 신청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등 나머지 후보는 방송연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한·중 지역교류 회복되나

전남도, 24일 저장·장시성 방문 교류협약

무안~베이징 하늘길 내일부터 운항 재개

전남도가 사드(THAAD·사드) 문제로 냉각된 한·중 지역교류의 물꼬를 트고 있다. 전남도 민·관 대표단이 중국 지방자치단체를 공식 방문하고, 중단됐던 무안공항과 중국과의 정기노선도 재개된다.

전남도는 23일 “김갑섭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민·관 대표단이 24일부터 28일까지 자매결연 지역인 중국 저장성과 장시성을 차례로 방문해 우호 증진과 교류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전남도 민·관 대표단에는 정기봉 전남 공예명장과 한성욱 전남 문화재 전문위원 등 도자문화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김 부지사 일행은 25일 저장성 리수이 시에서 개최되는 ‘제19회 한·중(전남-저장성) 포럼’에 참석한다. 26일과 27일에는 장시성 난창과 징더전을 방문해 고 위급 회담을 갖고 인문교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류 확대 협약을 체결하고, 징더전에 전남도자문화교류센터 설치를 협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저장성, 장시성과 매년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 도자기박람회 상호 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또 24일까지 한 달간 운항을 일시 정지한 아시아나항공 무안~베이징 노선이 25일부터 운항을 재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사드 보복’ 여파로 지난달 중국 정부가 단체여행객 모집활동을 금지하면서 무안국제공항 이송객 급감하자 무안~베이징(주 2회) 노선 운항을 일시 정지한 바 있다.

전남도는 지속적으로 권의를 받은 아시아나항공측이 무안~베이징 정기노선을 25일부터 운항 재개하고 탑승률 재고를 위해 여행사 특가 상품을 개발하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 광주·전남관광협회와 지역여행사·항공사 등은 최근 간담회를 열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테마상품을 개발하고, 보다 신속하게 항공 수요가 회복되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선경일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은 “한·중 간 외교안보 현안 때문에 지방정부의 교류도 일정부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표단의 활동이 전남도의 하반기 이후 대중국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당선인 의중 묻고 형태·시기 결정

대통령 취임식 어떻게 치러지나

행사 자체 간소화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5월 장미 대선’이 치러짐에 따라, 새 대통령의 취임식 계획도 선출 이후에나 결정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정되면 곧바로 당선인 축하 접촉회 취임식 형태와 시기, 장소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행자부에서 가능한 취임식의 형태를 여러 시나리오별로 제시하면, 당선인이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식으로 취임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이 확정된 당일 취임 선서만 먼저 하고 하루 이틀 내에 취임식을 여는 방안, 선서와 취임식을 당일애 약속으로 하는 방안, 선서만 하는 방안 등이 행자부의 ‘시나리오 목록’에 오를 전망이다.

이렇게 급박하게 취임식 행사를 결정하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는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들의 취임식은 늘 2월 25일 국회의 사당 앞 광장에서 열렸다.

전년 12월에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의전과 행사를 담당하는 행자부가 인수위와 협의해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함축해 보여

줄 취임식을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권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다.

당선 이후 천천히 준비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헌 헌법은 제69조에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해 선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취임식이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통해 대통령이 선서할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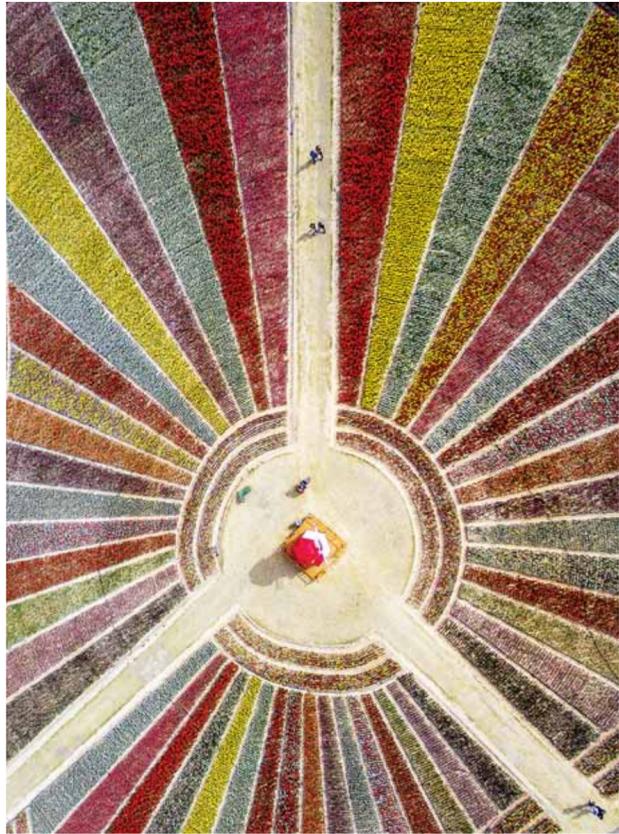
정부가 미리 후보자들과 접촉해 취임식 계획을 묻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불가능하다.

이에 행자부는 시나리오별로 행사 시기와 장소, 필요한 물품 등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관계기관과 조율해둔 뒤 당선인의 선택에 맞춰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어떤 시나리오가 선택되든, 서둘러 치러지는 취임식 행사 자체는 불가피하게 간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초청 의사를 보내야 하는 해외 정상 등 귀빈의 초대는 사실상 쉽지 않다.

행자부 관계자는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겨놓듯이 미리 모든 준비를 마쳐 둔 뒤, 당선인이 결정만 내려주면 곧바로 계획에 맞춰 취임식을 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부채살 모양 임자도 툴립꽃 휴일인 23일 신안군 임자도 툴립공원에 심어진 툴립꽃이 따스한 봄기운에 만개해 부채살 모양을 띠며 형형색색의 빛깔을 뽐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북핵문제 이번주 중대 기로

내일 인민군 창건일 도발 촉각

칼빈스호 내일 한반도 해역에

북핵 문제가 이번 주 중대 기로에 선다. 24일(월) 시작하는 주간 ‘북핵 캘린더’에는 북한이 핵 또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주요 계기로 평가받은 25일 인민군 창건일과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있다.

때문에 주중 북한의 도발 여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은 북핵 문제의 향배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발 북핵 해결 드라이브와 그것을 풀고 핵무기 실전배치를 완성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정면 충돌할 것인지 여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사일 발사로 도발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는 북한이 25일 군 창건일을 계기로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당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와 28일 렉스 틸러스 미 국무장관 주재로 열리는 유엔 안보리의 장관급 북핵 회의는 고강도 대북 압박 논의의 무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중국의 전례없는 대북 압박에 직면한 상황에서 4·25 계기 도발 여부 및 수위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매체(완구시보)가 22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축소할 것이며, 미국의 북핵 시찰 선제타격이 중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데서 보듯 중국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외교 소식통들은 중국이 공식·비공식적인 방법을 두루 동원,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주유소들이 연료 공급 제한에 나섰다. AP통신의 보도(22일)도 심상치 않은 신호로 풀이된다.

여기에서 ‘허풍’ 논란을 빚었던 미국 해군진 함도 칼빈스호는 25일 전후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 진입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일단 북한은 이런 압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21~22일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 담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평 등을 잇달아 쏟아내며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 강력히 대응할 의지를 내비쳤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

제43회 보성다향대축제

2017. 5. 3.(수) ~ 5. 7.(일) / 5일간
한국차문화공원(보성차밭 일원)

추천 · 주관 보성차생산자조합 /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Jeollanamdo 보성군 보성관광사